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12월 21일

제07-51호

[상세 내용] 통상환경 동향 및 2008년 전망

송영관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팀장 (ysong@kiep.go.kr, Tel: 3460-1073)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팀장 (bsong@kiep.go.kr, Tel: 3460-1208)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주요 내용

- ▣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 및 NAMA분야 핵심 쟁점에 대해 주요국 간 입장 변화는 없었음.
- ▣ 2008년 초반 DDA 협상은 농업 및 NAMA분야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2008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2008년 이후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 2007년 10월 말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의 건수는 194건이며, 칠레·일본 FTA 등 8건의 신규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발효됨.

 -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6월에 ASEAN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11월 말에는 ASEAN과의 서비스무역협정이 타결되었음.
- ▣ DD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RTA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향후 EU, 캐나다, ASEAN(투자협정) 등과 협상을 타결할 전망이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 개시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임.
 - 한·미 FTA 비준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한·미 양국 모두 대선 일정이 연속됨에 따라 비준 자체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적음. 특히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준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1. DDA(Doha Development Agenda) 추진 동향 및 전망

가. DDA 추진 동향

- 2007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및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된 DDA 협상은 2007년 6월까지 제네바 차원의 공식·비공식 협상과 주요 4개국(G4) 고위실무급 또는 각료급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농업 및 NAMA의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혀왔음. 그러나 2007년 6월 중순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4 각료회의가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문제와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 감축폭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음.
- DDA 협상의 핵심 의제는 농업 및 NAMA이고, 이를 제외한 서비스, 무역규범,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과 환경, 무역과 개발 등 DDA 협상의 여타 의제에 대한 논의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임.
- 농업 분야에서 미국은 자국의 농업보조금 총액을 170억 달러로 낮출 것을 제안한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120억 달러로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NAMA에서 미국과 EU는 개도국의 관세를 18%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도와 브라질은 30%를 고집하였음.
- G4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 협상 진전의 핵심인 농업 및 NAMA 분야에서 세부원칙에 관한 의장초안이 배포되었고, 11월 말에 수정초안을 배포하기 위해 주요 세부쟁점별로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이 9월 이후부터 전개되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 변화는 없었음.
- 브라질과 인도, 남아공 등으로 대표되는 개도국들은 NAMA 분야에서 개도국 관세감축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허용된 융통성도 부족한 반면, 농업 분야에서 농업보조금 감축폭은 상대적으로 관대해 균형을 잃은 초안으로 평가하고, 이의 대폭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협상의 경우, 2007년도 협상을 통해 농업보조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동안 삼각쟁점의 하나로서 DDA 협상 전체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온 농산물 관세감축과 민감품목 수 등의 쟁점에 대해 G4 간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농업 분야 세부원칙 합의 도출의 쟁점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임.

나. DDA 전망

- 2008년 초반 DDA 협상은 농업 및 NAMA 분야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
 - 농업 및 NAMA 분야 의장초안 수정안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이후인 2008년 1월 말이나 2월 초순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월부터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농업 및 NAMA 협상에서 세부원칙의 도출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대립구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협상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될 것임.
-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2008년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임.
 - DDA 협상의 핵심 의제인 농업과 NAMA 분야에서 협상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주요 4개국(G4: 미국, EU, 브라질, 인도)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점 외에도 DDA 종결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2007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주요국 간 이해 절충을 위한 기반 조성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 현행 미국 의회구조를 감안해 볼 때 새로운 TPA가 조만간 입안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2008년에는 미국의 대선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으로 인해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DDA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미국과 EU가 농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에 이룸에 따라 농업분야 대립구도는 미국-EU의 선진국과 브라질-인도의 개도국 간 대립구도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대립구도의 변화는 향후 DDA 협상의 대립구도를 단순화시켜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 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NAMA 분야도 비록 현재 개도국의 거센 반발로 추가 진전은 없는 상황이나, NAMA 협상의 남은 핵심 쟁점은 개도국 관세감축계수와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문제로 좁혀졌음. 따라서 향후 개도국 감축계수는 농업 분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과 마찬가지로 각료급 회의에서 정치적 타협에 따라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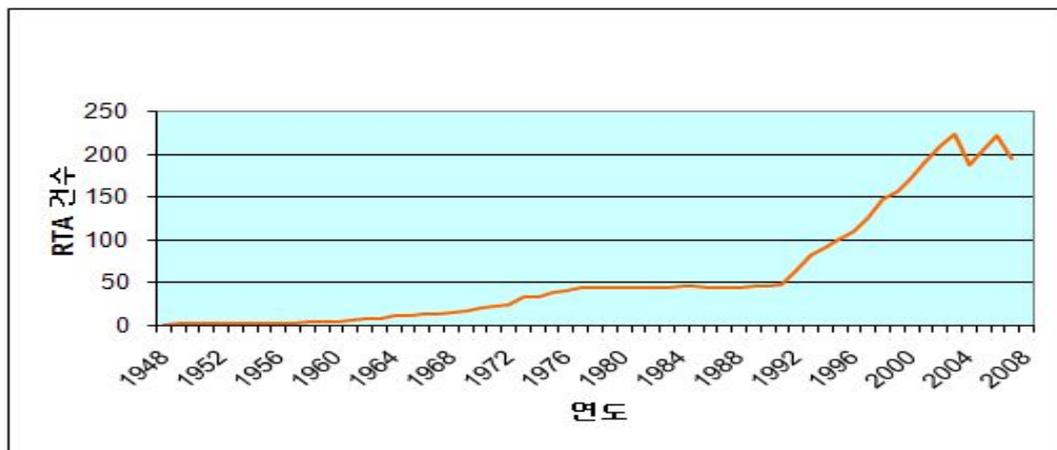
-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2009년 봄부터 DDA 협상이 본격화되어, 새로운 무역촉진 권한이 확보되는 2009년 후반기에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추진 동향 및 전망

가. 세계 RTA 추진 동향

- 지난 1948년 GATT 창설 이후 1994년까지 누계기준 91건을 기록한 지역무역협정은 WTO 출범 이후 오히려 더욱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07년 10월 현재 누계기준 총 194건에 달하고 있음(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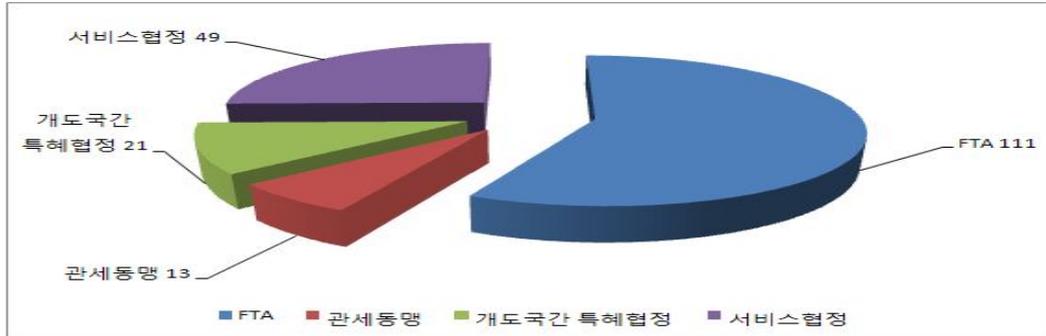
표 1.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자료: WTO 홈페이지.

- 또한 총 194건의 지역무역협정(RTA)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이 11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협정이 49건,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이 21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3건을 차지하고 있음.
-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의거하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총 8건의 지역무역협정이 2007년 중 추가 발효된 것으로 파악됨.
- 2007년에 신규로 WTO에 통보되고 발효된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GATT 제24조에 의거한 지역무역협정으로는 EC27(2007. 1. 1 발효), EFTA·레바논 FTA(2007. 1. 1 발효), 터키·시리아 FTA(2007. 1. 1 발효), EFTA·이집트 FTA(2007. 8. 1 발효), CEFTA 확대(2007. 5. 1 발효), 칠레·일본 FTA(2007. 9. 3 발효) 등이 있음.

그림 1.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2007.10.2 현재)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또한 GATS 제5조에 의거한 지역무역협정으로는 EC27(2007. 1. 1 발효)과 칠레·일본 FTA (2007. 9. 3 발효)가 있음.

표 2.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2007.10.2 현재)¹⁾

	FTA/CU (GATT 제24조)	서비스협정 (GATS 제5조)	개도국간 협정 (Enabling Clause)	활동중지 (Inactive)	총계 (Total)	누계 (Cumulative)
1995	16	6	1	14	9	100
2000	14		2	2	14	169
2001	12	7	1		20	189
2002	14	4	1	1	18	207
2003	14	3	1	3	15	222
2004	23	7		67	-37	185
2005	10	8		1	17	202
2006	11	8			19	221
2007.10	6	2		35	-27	194
총계	302	59	22	189	194	

자료: WTO 홈페이지.

- 한편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은바, 지난 2007년 4월 2일에는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2007년 6월에는 ASEAN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2007년 11월말에는 ASEAN과의 서비스무역협정이 타결되었음.
- 또한 멕시코와의 FTA는 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 이후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같은 해 6월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2007년 12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을 FTA로 격상시켜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과거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협상이 진행됨.

1) 누계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EU의 회원국 확대로 인하여 기존 협정들이 EU 협정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

표 3.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기 타결된 FTA	<p>한·칠레 FTA(04.4.1 발효)</p> <p>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p> <p>한·EFTA FTA(06.9.1 발효)</p> <p>한·ASEAN 상품무역협정(07.6.1 발효)</p> <p>한·ASEAN 서비스무역협정(07.11.21서명)</p> <p>한·미 FTA(07.4.2 타결)</p>
추진 중인 FTA	<p>한·캐나다 FTA(05.7 협상 개시, 07.11 말 제12차 협상 개최)</p> <p>한·인도 FTA(06.3 협상 개시, 07.10 말 제8차 협상 개최)</p> <p>한·EU FTA(07.5 협상 개시, 07.11 말 제5차 협상 개최)</p> <p>한·멕시코 FTA(06.2 협상 개시, 06.6 협상 잠정중단, 07.12 협상 재개)</p> <p>한·일 FTA(03.12 협상 개시, 04.11 이후 협상 중단)</p>
기타 여건 조성 중인 FTA	<p>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중)</p> <p>한·MERCOSUR FTA(06.10 공동연구 완료)</p> <p>한·GCC FTA(07.3 양자간 FTA 추진 합의)</p> <p>한·러 CEPA(07.11 양자간 CEPA 공동연구 추진 합의)</p>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나. 세계 RTA 추진 전망

- 지난 2007년 7월 DDA 농업 협상의 의장 세부원칙 초안이 발표되는 등 DDA 협상에 다소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나,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경제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 발전 도모의 수단으로 FTA 체결 등 지역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꾸준한 FTA 추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설사 WTO 회원국 간의 전격적인 합의에 힘입어 DDA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고 할 지라도 DDA를 통한 자유화의 범위 및 정도가 FTA를 통한 자유화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WTO 회원국들의 FTA 추진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8년 들어서도 미국, 일본, EU 및 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2007년 초 협상이 교착된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을 2008년 초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르면 2008년 1월 인도와의 FT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이미 체결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한 의회 비준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과 콜롬비아에 대한 국회 비준은 민주당의 반대 여론 속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인도, 호주, 베트남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은 인도와의 협상을 당초 타결 목표시점보다 6개월 앞당겨 2008년 중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7년 1월 1일 27개국으로 확대된 EU는 2007년 5월 ASEAN과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조만간 양자간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2008년 EU, 캐나다 등과의 협상을 타결하고, ASEAN과의 투자분야 협정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일부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 중국과의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나는 2008년 초, 보고서를 양국 정상에 전달함으로써 협상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와의 공동연구 종료와 함께 이 국가들과 산관학 공동연구 또는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ASEAN을 매개로 한 ASEAN+3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2007년 EU가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북·남미 국가 간의 경제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조성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